

도시숲의 경관적 기능과 유형 설정을 위한 기초 연구

-조선시대 풍속화를 중심으로-

안명준* · 배정한**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전공 ·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1.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도시에서 숲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도시숲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그 접근이 생활권 내에서의 기능적 활용에 초점을 두고 있어 현재로서는 도시숲의 조성 방안과 기술적 해결안 모색에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숲의 기능은 크게 공원림, 경관림, 방풍·방음림, 생산림의 네 가지로 구분되어 제시되고 있으며, 관련 법령의 정비가 추진되고 있어 실천이 이론을 앞서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도시숲의 이론적 필요에 따라 여러 범주의 설정이 가능하겠으나, 무엇보다 국내의 사정에 맞는 역사적인 접근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료를 통해 도시 공간에서의 숲의 위치와 그 형태를 연구하고 생활공간에서의 숲의 역할을 규명해 보는 것이 역사적 접근의 시작일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도시숲을 경관적 차원에서 살펴보았으며, 도시숲의 필요성과 이론적 배경을 역사경관의 차원에서 연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역사적으로 보아 생활권내 도시숲의 특징을 파악하고 현대 도시숲 조성에 필요한 기초 접근 시각 연구의 성격을 띤다.

2. 연구사 및 관련 논의

도시숲에 관한 연구는 숲의 조경적 역할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실용적 이용을 위한 제반 논의들이 1990년대 중반 활발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주무 행정기관인 산림청의 실행적 전략들이 최근 들어 많이 논의되고 있다.

도시숲의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풀이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포괄적으로 도시지역 혹은 사람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농촌지역이 환경과 경관 및 보건 위생에 기여하는 나무와 식물 일체를 말한다고 설명된다(박봉우, 2003:12). 우리나라 현 실정에 맞는 도시숲의 범위는 행정구역상 도시로 분류되는 시 단위 이상 지역에 분포하는 산림, 녹지, 공원 및 가로수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되고 있다(유리화,

2003:12).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도시숲을 삼국유사 등을 통해 오래전부터 언급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으나, 현대적 의미의 도시숲 역사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아 보인다.

선행 연구에 나타난 전통 도시숲의 유형은 강변형, 도로형, 동산형, 임구형, 위요형, 해안형, 시설형 등이다. 이것은 도시숲이 놓인 위치와 기능에 따른 구분이며, 도시숲의 현대적 기능 구분과 연관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도시숲에 관한 위치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장동수, 이규목, 1994; 장동수, 이규목, 김학범 1994).

이에 더하여 사료로서 회화를 활용한 연구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조경 측면에서 보면 진경산수화에 나타난 조망행동 분석(강영조, 배미경, 2002)과 구릉 경관 유형 분류(강명수, 2001)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은 진경산수화의 사실 묘사 특성이며, 이와 함께 풍속화의 그것에도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 관련 분야에서 회화에 접근하는 방식은 좀더 유연하다는 점을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근대 이전까지의 회화의 가장 큰 특징이 사실 묘사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3. 연구 범위 및 방법

생활권내에서 도시숲의 역사적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서 본 연구는 사료를 통해 그 특징을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회화의 사료로서의 가치를 기반으로 실제 그림으로 나타난 도시숲을 그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이는 시각적으로 확인하여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풍속화에 집중하였다. 이상향을 표현한 전통 회화의 경우 사실 묘사보다는 가상의 환경을 묘사하는데 중심이 있기 때문에 사료로서의 접근에 다소 무리가 있으나, 풍속화의 경우 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이다. 풍속화는 실생활을 바탕으로 그려졌으며, 지식인 계층이 담으려한 이상적 환경의 모습과 거리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전통 회화의 장르 중에서 풍속화가 당대 도시생활의 현상을 가장 잘 반영하였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따라서 가급적 당시의 현실에 기반하여 묘사한 풍속화를 선택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다소간의 과장과 허구가 있을 수 있으나, 생활권내에서 도시숲의 특징을 오히려 강조해 주는 역할이 있다고 보인다. 연구는 주로 도시숲이 표현된 풍속화를 현상적으로 관찰하는데 초점을 두었고, 표현된 도시숲의 위치와 크기, 예상되는 기능 등을 정리해 보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연구의 재료를 풍속화로 한정하고 역사적 시기 구분을 조선시대로 다시 한정하였다. 그것은 현재 우리나라 마을의 입지가 역사적으로 볼 때 300여년 이내에 형성된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경우에도 도시를 형성하며 사람들이 모여 산 지역은 현대와는 매우 다른 범위였으며, 마을을 형성하며 장소적으로 확산을 이룬 것은 조선 중기 이후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숲의 정의를 한정하지 않고 도시 생활권내의 산림과 식재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고자 한다. 수목 한 그루에서부터 군집을 이루는 산림까지 모두 도시숲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II. 풍속화와 도시숲

1. 사료로서 풍속화의 정당성

풍속화(風俗畫)란 말 그대로 인간의 생활상을 직접 대상으로 삼은 그림을 말한다. 그 의미는 당대 사대부들이 속된 그림이라는 의미로 속화(俗畫)라 부르기도 하였다. 당시의 문인화와는 다른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는 풍속화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18~19세기 봉건사회의 틀을 벗어나면서 민중의 삶 자체를 예술 표현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풍속화는 시대적 배경과 함께 다음과 같은 미술사적 의미를 가진다고 지적된다(이태호, 1996).

첫째, 시대적 증거로서 조선시대의 사회상을 읽게 해주는 기록이다. 둘째, 근대적 내지 근대사회를 지향하는 인간주의를 뚜렷이 보여준다. 셋째, 인간의 일상을 탁월한 예술성으로 구현해 내었다.

이것으로서 풍속화에 표현된 생활상과 경관의 객관성에 대한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풍속화가 그 자체로 기록물로 여겨지며 거기에 담긴 일상의 모습을 통해 당시의 경관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생활 공간에서의 일반적인 활동들을 담고 있어 다소 이질적이었던 특권계층의 공간과는 다른 일상의 모습들을 담고 있다고 하겠다. 이것이 당시 생활 공간의 산림을 탐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2. 풍속화의 이해

그렇다면 풍속화는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특징은 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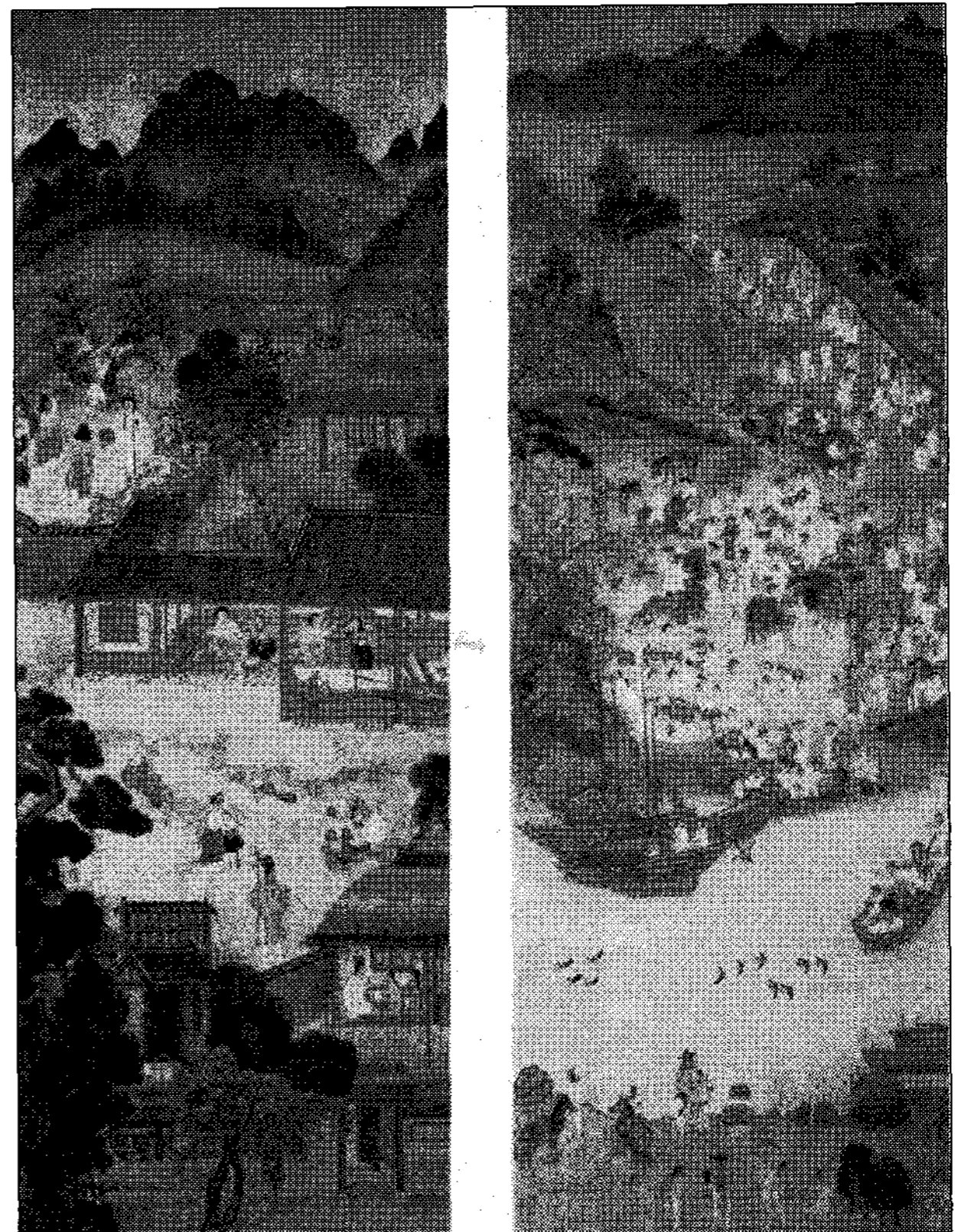


그림 1. 우진호, 경직도병, 연도미상



그림 2. 작자미상, 경직도, 연도미상

엇인가. 풍속화는 인간의 생활을 담고 있으므로 그 속에는 신앙, 종교, 정치, 생활, 사상 등의 다양한 삶의 모습이 펼쳐져 있다. 시대별로 나누어 볼 때 우리나라의 풍속화는 신앙은 선사시대부터, 정치는 고려시대부터, 통속 및 생활은 조선후기부터

주로 다루어 표현하고 있다. 당시의 문인화와 대별되었던 풍속화는 제작의 당대에도 그 특징이 서술되어 있다. 당시에는 속화로 불리며 풍속화와 민화의 개념을 모두 칭하고 있었으며, 통속성, 동시대성, 민족주의 경향 등을 지적하고 있다(정병모, 2000).

풍속화는 17~18세기 기록화로부터 태동하여 18세기 전반의 선비 화가들의 속화를 거치면서 발전하여, 조선 후기 유행을 하다가 19세기에 들어서면서 퇴조하게 된다.

Ⅲ. 풍속화 속 도시숲의 구분

1. 규모

수목의 표현은 대부분의 경우 개별 수목이 구분될 수 있는 수준에서 나타나고 있다.

1) 단독

단독으로 표현된 수목은 대부분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으며, 그 위치가 배경이 아닌 주요 경물의 자리로 나타나고 있다. 대문의 입구, 담 경계부, 주요 조망점, 건물 옆 등이 그렇다.

2) 몇 그루

수목은 대부분 두세 그루 이상, 십여 그루까지 함께 나타나고 있다. 두세 그루의 수목이 많이 나타나며, 마을의 곳곳에 고루 분포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작업 공간이나 연회 공간의 경계부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3) 군집

수목이 군집을 이루어 나타나는 경우는 생활 공간 내에서는 많지 않다. 주로 건물의 뒷 배경이나 마을의 배경으로 나타나는 경우 군집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언덕이나 멀리 보이는 산의 경우에 나타난다. 건물을 둘러싼 보안 목적의 수목 군집이 보이기는 하지만 흔히 마을숲으로 지칭되는 군락형 숲은 생활 공간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2. 표현

수목의 표현은 대체로 수종의 특징을 반영하여 표현하고 있으며, 수목의 수량에 따라 표현의 양상이 다소 다르다.

1) 개별 수목 표현

개별 수목의 경우, 화면의 앞쪽에 위치하여 크고 세밀하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대체로 계절이 반영되어 있으며, 수목이 풍성한 여름 모습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2) 수목 군집 표현

군집의 질감을 표현하기 보다는 개별 수목의 특징을 그대로 나타내어 그것들의 집합으로 표현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거리에 따라 세밀한 표현을 생략하기도 하였으나, 대체로 주요 수목 군집은 크기를 강조하여 세밀하게 표현하고 있다.

3. 위치

수목이 표현된 위치는 크게 집, 마을, 작업공간, 연회공간, 도성 전체 등의 공간적 규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1) 집

집의 경계 안쪽으로 나타나는 수목은 건물의 배경, 건물 주변, 담안 경계부, 담밖 경계부, 담 위, 마당의 경계부 등에 나타난다. 개별 수목이 주로 표현되어 있고, 두세 그루를 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보안상의 이유로 건물을 감싸고 있는 수목도 성기게 되어 있어 완전히 차폐하지는 않는다.

2) 마을

수목은 주로 집에 따라 한두 그루씩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마을 전체적으로 보면 수목이 고루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흔히 지적되는 성황단숲이나 기타 상징적 숲의 양상은 관찰하기 쉽지 않다.

마을의 배경을 이루거나 입구 부분에 나타나는 숲은 군락의 형태를 보이며, 수변이나 도로변의 특정 위치에 수목이 있는 경우도 볼 수 있다.

마을의 경우에도 놀이시설의 역할을 하는 수목을 관찰할 수 있다.

3) 작업공간

작업공간의 경계부에는 그늘을 제공하기 위한 역할로서 수목이 위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작업 상황을 관찰할 수 있는 위치도 표현되어 있다.

4) 연회공간

연회가 벌어지는 공간의 경우 입구와 주변부, 배경이 되는 위치에 수목이 있다. 이때의 수목은 관찰이나 감상의 대상으로서 표현되지 않는다. 연회 공간의 경계를 구성하고 그늘을 제공하는 등의 기능적 역할이 강조되어 있다.

수목이 풍성하게 표현되어 있고 동선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5) 도성

도성지역을 표현한 경우, 집들이 모여있는 모습에 따라 수목이 함께 표현되어 있다. 주요 길이나 수변, 대가의 배경, 관아의 경계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수목과 집이 섞여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며, 마을 별로 균락을 이룬 것처럼 묘사되어 있다.

4. 기능 추정

생활 공간 내의 수목은 그 기능을 앞서의 구분에 따라 추정해 볼 수 있다.

1) 경계 설정

특정 영역과 공간의 경계를 나타내고 시각적인 구분의 기능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의 수목은 군집을 이루어 표현되지만 조밀하게 식재되어 있지는 않다. 시선을 완전히 차폐하지 않고 수목 사이로 시야를 열고 영역을 구분해주는 역할로 보인다.

2) 그늘 제공

작업 및 유희시 그늘 제공의 역할이 나타난다. 일꾼들의 작업공간이나 감독자 돛자리 등의 위치에 수목이 있으며, 그늘을 형성해준다. 연회를 구경하기 위한 자리로도 활용되고 있다.

3) 감상 대상

감상의 대상으로서 수목이 나타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문인화에서의 경향과 뚜렷이 구분되는 모습이라고 보인다. 화면에 담긴 다양한 행위들을 살펴봐도 수목을 감상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4) 유실수

집 주변의 수목의 경우, 과실을 수확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녹음뿐만 아니라 유실수 역할도 하였다고 보인다.

5) 놀이시설

주요 생활 공간에서 아녀자들의 놀이시설로 그려진 경우가 있다. 그네가 걸려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고목 형태 그대로 활용되고 있고, 사내가 노는 모습은 관찰되지 않는다.

5. 특징 종합

풍속화를 통해 관찰할 수 있는 수목 표현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생활 공간의 수목이 군집을 이루어 나타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단독 혹은 몇 그루만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둘째, 대부분의 수목이 공간의 중심에 놓여 있지 않고 경계부에 위치한다. 이는 수목의 기능을 차폐, 공간 구획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게 한다.

셋째, 수령이 많은 수목이 많이 나타나며, 생활 공간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입지를 수목에 맞추었거나 오래전 심

어놓은 수목이 조선 후기 모습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넷째, 마을에 고루 분포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건물이나 도로에 부속되어 있다. 집 한 채에 한두 그루씩 수목이 관찰된다.

다섯째, 마을의 내부는 적은 수이지만 분포가 균질한 편이며, 마을의 외부는 군집을 이루어 전체적으로 밀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풍속화의 사실성 차원에서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현상적으로 드러난 내용만으로는 그 원인과 결과를 밝히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 부분을 보완하여 특징을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IV. 생활공간 도시숲의 해석

풍속화에 나타난 도시숲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 범주에서 다시 그 특징을 해석하여 볼 수 있다. 이것을 바탕으로 현대 도시숲 조성의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풍속화에 나타나는 도시숲의 양상은 화가가 파악한 도시 경관과 연관이 있으며, 그 해석에 따라 기록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몇 가지 차원에서 그 내용을 정리해 보는 것은 당시 도시숲을 보는 시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당시 생활 공간속의 도시숲은 다음과 같이 범주를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기능적 도시숲

풍속화를 통해 살펴본 도시숲은 우선 기능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도시숲은 몇 가지 차원에서 생활 공간에 나타난다. 대표적인 경우가 쉼터가 된다는 점이다. 또한, 과실을 제공하거나 공간을 구분하고 행동을 제한하는 기능을 가지고 표현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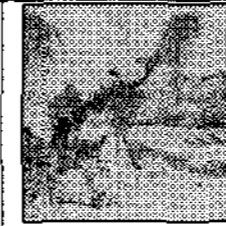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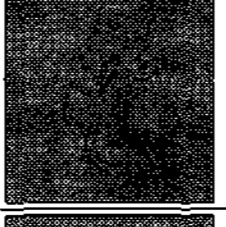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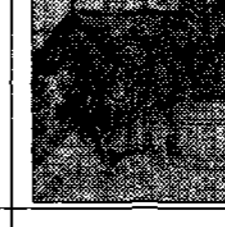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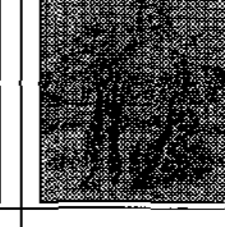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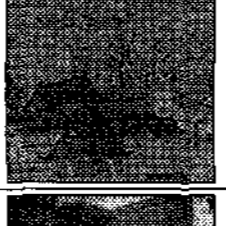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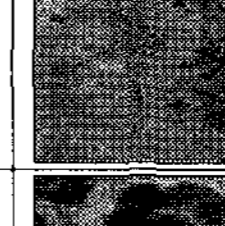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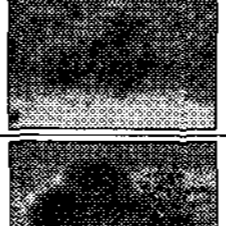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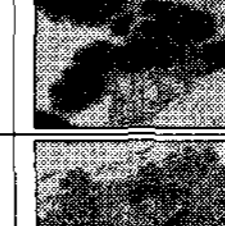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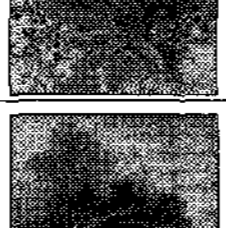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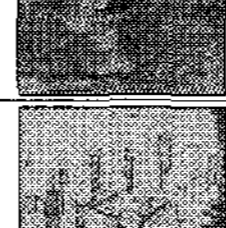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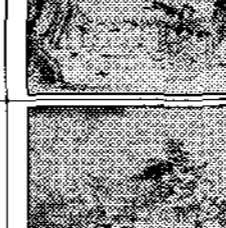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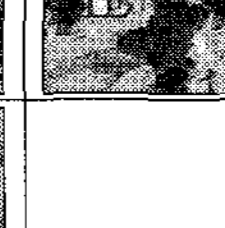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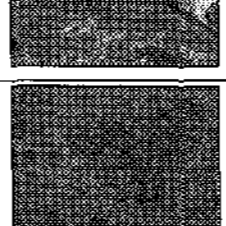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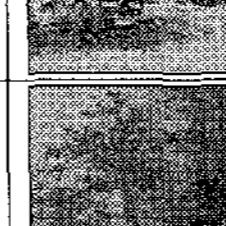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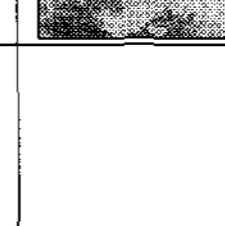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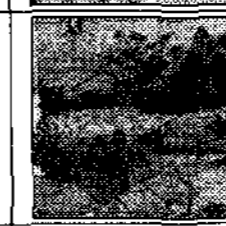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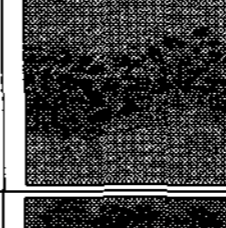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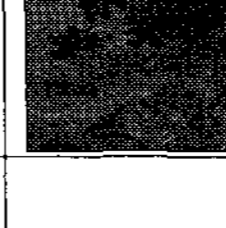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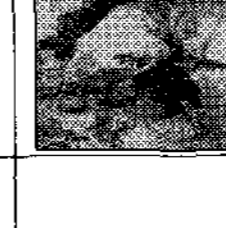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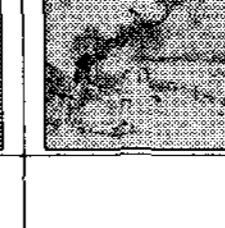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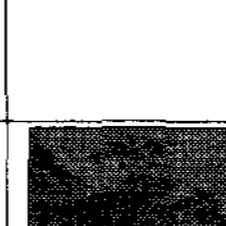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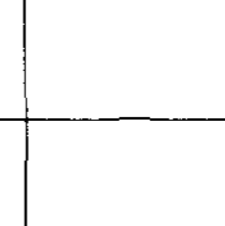





이를 바탕으로 볼 때 당시의 도시숲은 우선 기능적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구체적인 필요와 쓸모에 따라 조성되고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상징적 도시숲

전통 도시숲 관련 연구는 기능적 구분과 함께 상징적 위치 구분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특히 종교적, 보안적 입장에서 도시숲을 구분하는 경우가 많으며, 마을의 비보 차원에서 그 특징을 분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풍속화에 나타난 도시숲은 대부분 상징성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성황당이나 수구막이숲과 같은 종교 및 풍수적 역할이 행위와 함께 표현되어 있는 경우는 없었다. 이는 풍속화의 대상이 일상의 공간이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나, 사료를 보다 더 확충하여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인다.

표 1. 풍속화 속 도시숲의 구분

도시숲 구분		해당 풍속화	주요 장면				
			1	2	3	4	5
규모	단독	7, 28, 8, 11					
	몇 그루	18, 21, 10, 4, 5					
	군집	12, 16, 4					
표현	개별 수목	17, 25, 28, 8					
	수목 군집	16, 28, 2, 15					
위치	집	17, 12, 8, 6, 15					
	마을	17, 20, 2, 29					
	작업공간	18, 15, 9, 10					
	연회공간	7, 16, 15					
	도성	22, 12, 13					
기능 추정	경계 설정	12, 12, 15, 10					
	그늘 제공	7, 28, 25, 8					
	감상 대상	28					
	유실수	21, 28					
	놀이시설	17, 10					

3. 위상적 도시숲

도시숲은 위치상 영역의 경계, 영역의 배경 등 중심이나 핵심이 되어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는 산림의 역할을 생활권내에서 기능적 배치에만 중점을 두어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현대 도시의 공원처럼 특정한 구역이 나뉘어진 경우는 없었으며, 마을숲과 같은 경우도 쉽게 발견할 수 없었다. 이를 볼 때 당시 도시숲의 공간적 위상은 배경의 역할이자 경계의 역할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4. 감상적 도시숲

산림 및 자연을 감상하는 경우는 문인화에서 주로 나타난다. 반면 풍속화에서는 일상적 감상의 대상으로서 도시숲이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것은 그림 속 행위의 당사자들이 감상적 관점을 가지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감상을 강조하기 위하여 몇몇 수목의 경우 크기를 과장하고 묘사를 세밀하게 하는 등 경관적 특징을 강조하고 있는 경우도 볼 수 있으나, 이는 행위자의 입장이라기 보다는 그림을 그리는 작자의 입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인다.

V. 결론 및 제언

연구 결과, 생활 공간에서의 도시숲은 기능적 관점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군집을 이루기보다는 적은 규모로 고르게 분포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현대 도시숲의 범위 설정과 조성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첫째, 도시숲 조성의 입장에서 보다 세분된 도시숲의 유형을 연구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 도시 일상을 포함할 수 있는 산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일상적 기능을 분석하고, 그에 대응하는 도시숲의 유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도시숲 활용의 입장에서 개별 수목을 포함하는 소규모부터 중규모, 대규모, 초대규모 등의 현존 수목을 모두 도시숲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정 규모 이상 또는 면적 이상 등의 기준에서 벗어나 수목 자체가 도시숲의 하나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현재의 도시 수목 모두를 도시숲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때 주요 수목들의 네트워크와 그것이 형성하는 전체 수목의 매트릭스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도시숲 향상의 입장에서 도시 전체에 대한 고른 분포의 수목 식재를 기초로 하여 접근해야 할 것이다. 도시시설로써 공간을 구분하고 그렇게 구획된 공간에 밀집하여 식재하는 것보다는 전체 도시면에 대하여 균질하게 녹색의 나무가 분포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도시숲에 관한 역사경관적 접근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초 연구의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본격적인 연구 진행을 위한 선행 연구의 성격이므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풍속화 연구의 객관성에 대한 보다 논리적인 접근과 설명이 필요하며, 두번째로 연구 대상 선정의 절차와 이유가 보다 객관적일 필요가 있다. 세번째로 접근할 수 있는 대상 자료가 한정되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네번째로 분석의 과정이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므로 이에 대한 방법론적 고찰도 근거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주제는 소재와 방법을 보완하여 보다 구체화된 논문으로 발표될 것임을 밝혀둔다.

인용문헌

1. 김정태, 김학범, 장동수(1995) 전통도시숲의 실용적 기능에 관한 연구 1. 국토계획 30(4).
2. 김학범, 장동수(1995) 한국 전통도시숲의 변천특성과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정원학회지 13(1).
3. 박봉우(2003) 도시숲이란?. 숲과 문화 12(1).
4. 유리화(2003) 우리나라 도시숲의 현황. 숲과 문화 12(2).
5. 이규목, 장동수(1995) 전통도시숲의 실용적 기능에 관한 연구 2. 국토계획 30(5).
6. 이태호(1996) 조선 후기 회화의 사실정신. 학고재.
7. 이태호(2002) 풍속화 하나, 둘. 대원사.
8. 장동수(1995) 한국 전통도시조경의 장소적 특성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30(1).
9. 장동수(2005) 청계천 주변에 조성된 전통도시숲의 복원에 관한 연구. 안성산업대학교 논문집.
10. 장동수, 이규목(1997) 경주 포항시 전통도시숲(읍수(邑叢), 임수(林叢))의 보존과 관리,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정원학회지 15(1).
11. 장동수, 이규목, 김학범(1994) 한국 전통도시숲의 입지적 특성과 유형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29(1).
12. 정병모(2000) 한국의 풍속화. 한길아트.
13. 조현재(2003) 도시숲의 기능과 역할. 숲과 문화 12(3).